

축산물부분육 표준규격 유통제도 조기도입 희망

축산물등급판정소 전북지소장 강태종

일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는 금년 4월로 만 1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올해가 쇠고기 수입자유화 원년이다. 우리보다 10년 앞서 자유화한 일본의 쇠고기 유통현황을 점검해 보면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축산물이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나 여부를 떠나 축산물의 위생성과 유통의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갯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든지 유통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인해 소비자를 수입육 코너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축산업에 종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현실이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한 예로 도축장에서 소도체를 발골하여 포장도 하지 않고 냉장차량이 아닌 일반 트럭으로 운송한다든지, 대형 납품업체에 등급을 속여서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해마다 부정축산물 유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통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육유통이 아닌 부분육표준규격 유통제도로의 전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부분육표준규격에 의한 유통제도는 축산물의 위생성을 향상시키고, 유통의 투명성을 통한 공정한 거래로서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축산물등급판정소 전북지소에서는 부분육 표준규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백화점 생산자단체 할인마트 등 대형식육판매업체 35곳에 대하여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8%에 해당하는 업체가 부분육표준규격 유통이 비인기부위 해소 등으로 인한 식육

판매업소의 경영개선과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했으며, 빨리 도입되기를 원하였다. 다만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에서 원하는 부위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주권에 부분육 도매시장 건립과 육가공장에서 품질이 보장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기타 인기부위의 가격상승에 대한 가격상한선제 도입과 결합 발생시 리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식육문화가 선진화 될수록 냉장 부분육의 유통량이 증가되는데 수입육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냉동지육형태가 많았지만 지금은 냉장육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육 표준규격에 의한 냉장유통을 빨리 정착시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번조사에서 유통업체 구매자들이 원하는 부분육을 사고 싶어도 구매할 곳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답답함마저 느꼈다. 이는 표준규격의 부분육 유통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해결할 수 있고, 공급자인 육가공업체와 구매자인 식육판매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부분육 표준규격 유통 정착은 곧 축산물 전자상거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사대상 업체의 대부분은 아직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37.1%에 해당하는 업체가 부분육 표준규격

에 의한 전자상거래시 참여의사를 밝혔고, 관망하겠다는 의견이 31.4%, 나머지 31.4%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는 아직도 축산물에 대한 구매는 현물을 직접 보고셔야 하겠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PC 보급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의 PC 보급 및 활용의 대중화도 이루어 내야 할 과제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부분육 표준규격 유통제도에 관하여는 유통업체의 관심이 더 높았는데, 이는 생축 구매에 따른 품질의 불확신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지육구매에 따른 비인기부위 체화로 인한 경영부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부분육 구매욕구에 대한 유통업자의 생각은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설문조사

1. 조사대상 유통업체 현황

구분	생산자단체	백화점	할인마트	계
유통업체수	18업체	2	15	35

2. 월간 육류 판매량

(단위:두)

구분	최고	최저	평균
최고기	70	1	7.8
돼지고기	1,000	11	128.8

* 돼지고기 부분육 판매의 경우 정육 45kg을 지육 1두로 환산하였음.

3. 원료육 구매방법

(단위:%)

구매방법	최고기	돼지고기
이용도축	45.7	8.5
지육 구매	11.4	8.5
납품	14.2	5.7
부분육 구매	14.2	65.7
기타	14.2	14.2

* 원료육 구매방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소의 경우는 이용도축이 많으며, 돼지의 경우는 부분육 구매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기타의 방법은 지육구매와 부분육구매를 병행하는 등의 여러가지 형태임. 최고기를 부분육으로 구입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자체 육가공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 단체임.

4. 축산물 부분육 표준규격에 의한 유통의 필요성?

- 가. 필요한 제도이다 82.8%
- 나. 보통이다 14.4%
- 다. 불필요한 제도이다 2.8%

5. 부분육 표준규격에 의한 유통시 구매 의향?

- 가. 구매하겠다 65.7%
- 나. 관망 14.5%
- 다. 구매하지 않겠다 20.0%

- 구매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1) 품질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2) 원하는 부위만 구입하기 어려워 가격 상승이 될 것 같아서
- 3) 가까운 곳에 도매시장이 없어서
- 4) 진공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낮아 판매가 어려우므로

6. 부분육 표준규격에 의한 전자상거래시 참여 의향?

- 가. 참여 하겠다 37.1%
- 나. 관망 31.4%
- 다. 참여하지 않겠다 31.4%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 1) 세품에 대한 신뢰성 저하(품질, 신선도등) 우려
- 2) 인기부위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 3) 리환이 안될 것 같아
- 4) 편의성을 못느껴서
- 5) 인터넷 이용방법을 몰라서

7. 유통업체 입장에서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가. 전국권에 부분육 시장 도매시장 건립 필수
- 나. 품질의 보장과 허위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육가공장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다. 인기부위 가격상승에 대한 한도 설정
- 라. 리콜제 도입